

# 무자년 새해, 양돈산업 발전 위해 단합하는 경남도협의회를 가다



▲ 양돈협회 경남도협의회는 지난 1월 4일 우수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인 창원시 소재 천지우에서 최상백, 최영열 전 회장과 하태식 부회장을 비롯해 경남도지역 지부장 및 양돈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지역 원로양돈인 간담회를 겸한 신년인사회를 갖고 무자년 새해 양돈산업 발전을 기원하는 자리를 함께 했다.

글·사진 - 오유환

## 경남도협의회 신년인사회 개최

양돈협회 경남도협의회(협의회장 박창식)는 지난 1월 4일 우수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인 창원시 소재 천지우에서 경남지역 원로양돈인 간담회를 겸한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신년인사회에는 양돈협회 최상백, 최영열 전 회장과 하태식 부회장을 비롯해 경남지역 각 지부장이 참석했으며, 경남도청 강효봉 축산과장과 담당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무자(戊子)년 새해 양돈산업 발전을 기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상남도 양돈산업을 대표하는 대한양돈협회 경남도협의회는 현재 박창식 도협의회장을 중심으로 여영성 부회장(창녕지부장), 이동문 사무국장(진주지부장), 최상림 감사를 임원으로 경남 지역내 거창지부(지부장 엄홍주), 고성지부(지부장 이충만), 김해지부(지부장 박재민), 마산지부(지부장 최행균), 밀양지부(지부장 박수걸), 부산지부

(지부장 유해근), 사천지부(지부장 구기호), 산청지부(지부장 안윤섭), 양산지부(지부장 서춘계), 울산지부(지부장 이상국), 의령지부(지부장 문영길), 진주지부(지부장 이동문), 창원지부(지부장 손동현), 창녕지부(지부장 여영성), 하동지부(지부장 정의근), 함안지부(지부장 함연수), 함양지부(지부장 염형섭), 합천지부(지부장 김수정) 등 18개 지부로 구성되어 서로 합심하며, 지역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박창식 경남도협의회장

## 양돈인의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자

이날 박창식 도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는 우리 양돈인의 끝없는 함성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타결과 한·EU FTA 협상,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금지 등 전국 양돈인들의 어깨를 짓누른 한 해였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경남 양돈인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상백 전 회장 역시 “모두가 하나 된 뜻으로 함께 힘을 모은다면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며 양돈인들의 단합과 결집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농정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축산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함안지부 함연수 지부장에 농림부장관 표창장을 전달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되어 양돈인들의 큰 격려와 박수를 받았다.

이날 경남 양돈인 신년회를 맞아 박창식 경남도 협의회장을 만나보았다.

### □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양돈인으로서 기대와 바람이 있다면?

올해 양돈산업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때 내적으로 고품질 돈육생산, 생산성 극대화라는 과제가 양돈농가의 몫이라고 한다면, FTA 시대, 고곡물가격 시대의 도래에 따르는 외부환경의 변화는 정부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는 양돈농가들이 모두 감당하기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새 정권 출범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양돈인들에게는 FTA체결에 따른 수입육과의 경쟁이 큰 부담입니다. 지난해 양돈인 총궐기대회에서나 벨기에 원정투쟁단에서 보여주었던 FTA와 관련한 일관된 양돈인들의 요구는 개방에 앞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 현재의 양돈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FTA는 대세이긴 분명하지만, 이에 좌절하지 말



▲ 이날 농정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축산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함안지부 함연수 함안지부장이 농림부장관 표창장을 전달받았다.(사진 왼쪽부터 강효봉 경남도 축산과장, 함연수 함안지부장)



▲ 경남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는 최영열 양돈협회 명예회장.

고 양돈인들의 단합된 모습으로 산업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양돈산업이 소모성 질환으로 MSY가 13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과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생산비 또한 치솟고 있는 점에서 사상 유래 없는 위기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생산성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돈열 청정화와 PRRS 안정화 같은 대책을 통해 소모성질환 극복의 기반을 조성하고 네덜란드 PTC+와 같은 양돈전문 교육기관의 설립을 통해 양돈인들의 재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양돈현장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 양돈산업의 주요 시설들은 90년대 UR협상 당시 지원받았던 시설축사라는 점입니다. 이 시설들의 유효기간이 다하고 있는 현재시점에 소모성질환과 생산성 하락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양돈장이 자생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를 통한 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료비 폭등으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현재의 농가의 재무구조로는 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금 부담을 농가에 자체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 점에서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 이와 관련해 축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FTA 대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 FTA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현장의 농가들에게는 그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경남지역에 올

해 배당되는 물량은 총 15개소이지만, 이 정도는 경남지역 20개 시·군에 매년 각 1개도 배정되지 못하는 물량이었어서 농가들이 그 실효성을 실감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FTA 경쟁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농가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집약적이고 조속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 현재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효과적인 가축분뇨 처리문제가 가능한 창녕, 의령, 진주, 고성 지역 등에서 모범적으로 가축분뇨 자원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진주지역 가축분뇨 액비 시연회 장면)

❑ 가축분뇨 처리문제 역시 양돈농가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경남도협의회에서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현재 가축분뇨 처리문제로 자연순환농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경남도협의회에서는 자연순환농업의 확대와 함께 지역 여건에 기반을 둔 시군별 가축분뇨 처리방안 모색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다양한 분뇨처리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효과적인 가축분뇨 처리문제가 가능한 창녕, 의령, 진주, 고성 지역 등에서 모범적으로 가축분

뇨 자원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여건상 자연순환농업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지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지역의 경우 공공자원화 또는 공동자원화 시설을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합천의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을 통해 원활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으며, 김해의 경우 지자체를 중심으로 자체처리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민원 등의 각 지역별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민의 이해를 얻고 공존을 할 수 있는 양돈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양배출에 의존하고 있는 농가가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양돈농가들이 해양배출을 중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경남도청을 중심으로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양돈농가들과 힘을 합쳐 가축분뇨 문제 처리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있다는 점이 양돈농가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 지난해에 이어 사료업계의 배합사료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돈농가들의 생산성이 향상되더라도 치솟는 사료 가격 상승세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는 치솟는 국제 곡물가격에 따른 배합사료의 가격상승과 축산물의 원가상승으로 인한 사료산업과 축산업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제곡물가 및 유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료가격의 모든 상승요인을 소비자인 농가에 계만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치솟는 국제 곡물가격으로 어려운 사료업계의 고충을 알고 있지만 양돈



농가 없이는 사료업계도 존재할 수 없는 만큼 서로 상생의 자세로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작금의 사료난은 기본적으로 식량위기, 식량안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국내 생산대책 마련과 국제시장에서의 안정적 곡물 확보 능력제고, 적정 비축물량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배합사료 원가절감에 부담이 되고 있는 요인들을 개선해 나가며 대내외적인 제도 및 불합리한 규제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 양돈자조금의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 보십니까?

한·EU FTA가 체결될 경우 양돈업계에 불어 닳칠 타격은 산업의 존폐를 염려해야 할 정도입니다. 개방의 거센 파도를 슬기롭게 넘어설 수 있도록 전 양돈인들이 힘을 모아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양돈자조금의 필요성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양돈자조금이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상 유래 없는 양돈업 위기의 시기에 양돈농가의 대표가 자조금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지난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회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 및 관리위원장을 포함한 관리위원회 재구성'이라는 요구를 대의원들이 한 것이고 이런 요구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부 역시 양돈자조금은 거출주체인 양돈농가들이 주인인 만큼 양돈산업 전체 발전을 위한 사업전개와 운영이 필요하다는 농가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자조금사업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경남도협의회 간사 모임

### ▶ 마지막으로 한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산업을 지키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양돈인 스스로가 양돈업을 지키고 영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하며, 양돈협회를 중심으로 한국 양돈이 반드시 필요한 식량산업임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축산업은 현재 농촌경제 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임에도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경종과 축산이 함께 조화를 이뤄 지속 가능한 양돈산업의 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이제 양돈산업은 양돈생산에 국한된 것이 아닌 최중산물인 '돼지고기' 중심의 돈육산업으로의 인식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산업으로 진화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만큼 국내산 돈육이 품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양돈농가가 해야 할 일과 정부가 해주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국내 양돈산업이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경남 양돈인들이 앞장 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돈